

여순 10·19사건실무위 심사 581건 통과

심의·결정건 2126명으로 늘어 신청대비 30%…31일까지 마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지난15일 동부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갖고 희생자 58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심의·결정 건은 총 2126건으

로 늘었으며 신청 대비 30%다.

이날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581건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건이 76건, 군법회의명령 등 공적증빙 첨부사건 214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289건, 추가 유족 신고 2건이다.

실무위원회는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중앙위원회

의 심사·결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조사 인력 증원과 조사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

오는 31일 신고·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남은 기간 희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막바지 홍보에도 집중한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전남도는 사실조사와 위령사업 등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나름 성과도 있었던 만큼 희생

자·유족들에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유족회 및 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어려운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된 이후 361건을 추가로 접수해 지난 13일 현재 총 7155건을 접수했다.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의 최종 희생자·유족 결정은 현재까지 434건이다.

박간재 기자

겨울학기 생활 프로그램 모집 광양중마도서관

광양시 중마도서관은 겨울학기를 맞아 오는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5주 동안 어린이(유아 5~7세)와 초등학교생(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서관 생활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설되는 프로그램은 △유아 5-6세, ‘신나는 그림책 놀이터!’ △유아 6-7세, ‘재미있는 우리의 옛이야기!’ △초등학교생 1-2학년 ‘전래놀이와 놀자!’ △초등학교생 2-3학년 ‘겨울아, 읽자!’ 등 4개 강좌이다.

수강 신청은 2024년 1월2일 오전 10시부터 1월9일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반드시 수강생 이름(아이디)으로 신청해야 한다.

광양=안영준 기자

주민숙원 자체설계단 운영 장흥군, 군비 예산절감 기대

장흥군은 2024년 주민숙원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주민숙원 자체설계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도시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한 자체설계단은 군, 읍면 시설직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 초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 82억원 300여건의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했다.

내년 본예산 37억원 150건의 사업을 자체설계단 운영을 통해 설계용역비 3억원 가량의 군비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정 신속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 조기발주로 주민불편등 상당부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기인 5월 초 이전에 마무리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경로당 입식 탁자 지원 대폭 확대 보성군, 373개소

보성군은 2024년 노인복지 신규 시책으로 ‘경로당 입식 탁자(테이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자체 지원으로 3억 3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12개 읍면 총 449개소 중 설치 희망 경로당 373개소를 대상으로 4인용 접이식 입식 탁자와 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경로당 지원은 올해 초 보성군이 ‘군민과 대화’, ‘경로당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한 결과다.

보성군은 접이식 입식 탁자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좌식문화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식사를 비롯해 마을 회의, 찾아가는 한글 교실, 읍면 심혈관질환 예방 교육 등 경로당 프로그램 시에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별교읍 별교경로당 안택조 당장은 “의자에 앉아 무릎도 지키고 밥도 먹고 강좌도 듣는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더 편하다”며 “매년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경로당 환경이 더 좋아하니 참 좋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순천 상사면 마중물보장협

순천시 상사면 마중물보장협의체(위원장 지정석)가 지난 5~6일 양일간 상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17일 순천시 상사면 마중물보장협의체에 따르면 회원 20여 명이 이틀간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4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갔다. 이후 회원들은 상사면 일원의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28가구와 각 마을경로당 30개소에 김치를 전달하며 안부도 살폈다.

이번 김장은 로템축산(대표 주철수·양연정)으로부터 후원받은 100만원과 농협중도매인협의회에서 후원한 절임 배추 400포기 등을 활용하여 담근 김치로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했다.

지정석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항상 내 가족처럼 살피고 봉사에 임하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담은 김치를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겨울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앵커기업 유치 미래도시 도약 순천시, 투자유치 설명회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5일 서울경제진흥원 SBA홀에서 수도권 앵커기업 및 산업 관계자 84개 업체, 15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K-문화콘텐츠를 선도할 앵커기업 유치’를 목표로 진행됐으며, 시는 2023순천만국제제원박람회 이후 정원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가 접목해 만든 새로운 미래 도시의 모습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애니메이션 웹툰협회와 함께 현재 직접 산업군의 현황을 뛰는 다양한 기업까지 참여하는 등 향후 K-문화콘텐츠를 선도할 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앵커기업’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콘텐츠 산업의 경우 주생산 및 소비 주체가 청년으로, 사업체 81%, 매출액 87.6%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시는 급변하는 AGI(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시대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앵커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원이라는 생태자원 위에 일과 일상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확장성을 발판 삼아 도시 전체를 산업기지화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이 K-문화콘텐츠 종합 비즈니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정책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5~6일 순천시 상사면 마중물보장협의체가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순천시 제공

광양시-LF리조트, 구봉산 관광단지 500억 추가 투자

케이블카·알파인 슬라이드 등 2030년까지 총 4200억 투자

광양시 구봉산권 종합 관광휴양지 개발을 위해 500억원이 투입된다.

광양시는 15일 정인화 광양시장과 ㈜LF리조트 김기준 대표이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F리조트와 구봉산 관광단지 연계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구봉산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 등 총 500억 원 규모의 관광시설을 2030년까지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LF리조트는 구봉산 권역에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3700억 원을 비롯해 총 4200억 원을 투자한다.

연계사업의 핵심은 LF리조트가 추진 중인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와 시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테마파크’, 구봉산 정상의 POSCO ‘체험형 조형물’ 등 구봉산

권역의 관광 핵심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

400억 원이 투자되는 ‘구봉산 케이블카’는 어린이 테마파크에서 구봉산 정상을 연결하며 100억 원을 투자해 구봉산 정상에서 구봉산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알파인 슬라이드’ 및 구봉산 관광단지와 어린이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이동 수단을 구축한다.

협약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구봉산 권역 종합 관광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LF 리조트가 232만 4486㎡ 부지에 3700억 원을 투자하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는 11월 말 현재 사유지 기준 85.3%를 매입 완료했다.

전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9

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단지 지정 사전협의서를 제출해 현장 실사를 마쳤다. 자료 보완 후 올 연말까지 사전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2024년 6월까지 마치고, 잔여부지 확보 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구봉산 관광단지 주요 시설은 관광숙박시설 230실, 골프장 27홀, 어린이장기무지움, 튜비(4계절 썰매장), 루미나, 롤링집라인, 무동력 모노레일 등 숙박, 운동, 오락, 휴양 시설 등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관광 지향점에 동참해 3700억원을 투자하는 구봉산 관광단지에 이어 이번 연계 시설로 500억원의 투자를 결정해 준 ㈜LF리조트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읍 민원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

만족도 조사 결과 92.95점

고흥군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흥군은 민원 행정 품격 향상과 친절·청렴 브랜드 정착을 위해 실시한 2023년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만족도가 92.95점으로 매우 높았다고 17일 밝혔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난 4월~11월 6회에 걸쳐 군청과 16개 읍·면 현행시스템(새울)으로 접수한 3일 이상 기한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 대상으로 조사됐다.

민원 담당자 서비스 과정과 결과에서 전문·친절·공정·대응성, 서비스 환경 등 9개 항목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으며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반기 만족도가 92.86점이던 것에 비해 하반기 만족도는 93.04점으로 0.18점 상승했다.

하반기 조사 결과 중 서비스 과정의 친절성은 93.67점(0.34 상승), 서비스 결

과의 공정성은 93.54점(0.09 하락) 등 만족도가 높았으나, 민원인이 인식하는 신속한 업무처리 결과 안내는 91.88점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92.48점)의 종합만족도가 여성(92.12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20대(98.24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군청사보다 읍·면(95.51점)에서 3.81점이 높았다.

한편 민원 행정서비스 조사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이용 경험이 있는 민원인 12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도 수준에서는 ±3.64%.

양기람 기자